



P2 / 교수칼럼

김형원 원장의 '고민하는 삶'이 실려있습니다.



P3-P8 / 느헤미안 칼럼

김경모님의 '2년 반을 지내며...'와 이주님의 '내가 그들의 슬픔에 함께 하게 된 이유'가 실려있습니다.



P10-P12 / 재정보고&기도제목

느헤미아의 살림살이 보고와 기도해 주실 내용 등이 있습니다.

# 뉴스레터 느헤미야

2016년 9월호 (통권 8호)



**화룻볼 모임**

7/13 <채식주의자> 독서모임으로 느헤미야에서 모였습니다.

8/20 강화춘 자매 집에서 모임 후 하.나.의.교회를 탐방하였습니다.

**신학특강**

7/12 전성민 연구위원과 우종학 교수(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의 <신학과 과학 토크쇼>가 있었습니다.

**청년 수련회**

7/6-9 하나님나라 공동체 수련회 <청년

함께>가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헬라이어 기초강좌**

8/23-26 이형일 객원교수의 <헬라이어 기초강좌>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개강**

8/30 기독교학 입문과정(서울/대전), 심화과정, 목회학 연구과정이 개강하였습니다.

9/5 월요 신학전문과정이 개강하였습니다.

**팟캐스트 - 채널 느헤미야**

<에고에이미>에 이어 개편된 <채널느헤미야>에서는 지난 여름신학특강 네가지 강좌와 '배근원(배덕만, 김근주, 김형원)의 에고에이미', 여러 책을 다루는 'BOOK케미야', 영화를 보는 시선을 넓히는 '와일트카드:영화속으로' 등의 많은 컨텐츠가 업로드 되어있습니다.

**교수연구실 이전**

2층에 있던 교수연구실을 1층 주차장 안쪽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좀 더 넓어진 공간으로 교수진들이 더욱 연구에 힘쓰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칼럼

## 고민하는 삶

>> 김형원 원장



기독교가 동네북이 되어버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자기 확신에 찬 소위 '믿음이 좋다'는 '개독교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고 신학 공부를 해왔지만 이 질문에 선뜻 '이것이다'라고 대답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찌면 지금도 그 대답을 찾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하고, 주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의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청년 시절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나이 들어서도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는 노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로부터도 기꺼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배운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지식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이 될 때까지 평생 동안 배우고 생각하고 경험을 통해 확신했던 것을 어린아이의 바른 말 한마디에 바꿀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겸손하고 낮아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따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배울수록, 인생 경험이 쌓여갈수록, 마음과 생각이 굳어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자기 고집이 더 단단해지고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성향이 더 커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성장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성장한다는 것은 새로운 지식물을 쌓아서 거대하고 단단한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삼 하나 들어가지 않을 만큼 굳었던 마음의 땅을 기경하여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서 씨앗이 잘 자라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답을 찾았다는 자기 확신입니다. 그 순간 생각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 사이에 발생한 괴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와 같은 고민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이 멈추는 순간 하나님 말씀조차도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내 틀이 단단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는 말씀의 검도 내 마음 앞에서는 무딘 쇠조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민하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멈추는 순간 내 마음이 내 키는대로, 몸이 편한대로, 익숙한대로, 살아왔던대로, 주변의 압력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삶이 아니라 죽음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신학공부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 나를 화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묵은 땅을 헤집어서 단단한 고집으로 쌓아올린 장벽을 무장해제하고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느헤미안

## 2년 반을 지내며...

>> 김경모 목회학연구과정 3년



전업 학생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을 쓰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학교에 과제제출을 위해서 쓰는 에세이도, 서평도, 심지어 일기쓰기도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쓸지 고민 하다 보니, 신학연구과정 3년째 재학 중인 학생의 시각에서 보고 느꼈던 점을 써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의 연구과정을 마쳐가는 시점에서, 신학교로서의 느헤미야를 설명하고 저의 경험을 중심으로 그간의 소감을 간략하게 덧붙여 보겠습니다.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는 ‘하나님나라의 구현과 한국 기독교의 재구성’을 이야기하면서 교육, 연구, 실천에 힘쓰는 단체입니다. 특히 교육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는 입문과정에서 연구과정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학연구과정’은 기존의 신학대학원과 같은 교육과정을 가진 프로그램입니다. ‘연구과정’을 마치게 되면 목회자 후보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신학대학원과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신학대학원과 달리 특정 교단에 속하지 않게 되고, 졸업해도 교육부에서 인가받는 석사학위를 받을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흔히

들 이야기하는 ‘비인가 신학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구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업량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다른 신학교의 구체적인 교과과정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느헤미야 수업의 구성이나 주어지는 과제물의 양은 그 자체로도 적지 않습니다. ‘연구과정’은 화, 수, 목 3일간 진행되는데, 1학년의 경우는 화, 목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있고, 수요일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채플까지 마치면 오후 5시쯤이 됩니다.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힘든 일정입니다. 게다가 1학년 1학기의 기말과제는 대부분이 소논문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 방학을 소논문과 씨름하며 보내게 됩니다. 저도 1학년 때에는 신학이라는 학문이 낯설고, 주어지는 과제를 마치기가 힘들어서 새벽에 잠들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는 입학 전에는 고시생이었는데, 저의 아내가 이렇게 공부했다면 진작에 시험에 붙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거라며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2학년이 되면 저녁 수업이 없어지므로 조금 수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신학에 대해서 조금 알기 시

작하게 되면서 수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집니다. 3학년이 되면,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전문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수업은 주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입니다. 저의 경우는 공동서신, 기독교 중간기, 한국 개신교 영성사의 세 과목을 월요일에 수강했습니다. 다른 학우들도 한두 과목 이상은 월요일 과목을 수강합니다. 그래서 결국 3학년은 월~목요일 오후는 모두 수업으로 보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일정을 고려해서 매 학기 한 주일의 '리딩워크'를 주어서 오직 독서로 보낼 수 있는 한 주를 학사일정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연구과정'은 한 학년이 10명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강생을 포함하면 한 수업의 수강생은 10명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업은 활발한 질문과 토론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들이 학생 각자의 이름을 알고 있고, 교실도 크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수업에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신학교와 다르게 교수들 각자 속한 교단도 서로 다르고, 후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보니 특정의 신학적 색깔을 강요하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수업에서 금지되거나 허락되지 않는 질문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1학년 때 가장 놀랐던 부분입니다. 일부 다른 신학대학원의 경우는 교수가 수업에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정치적으로 제한된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연구과정의 학문적 스펙트럼은 아주 넓으므로, 수업 시간에 넓은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이 오고 갑니다. 저도 질문을 많이 해


서 교수님들을 귀찮게 해드리곤 했는데, 어느 교수님도 질문에 대충 대답하고 돌려보내셨던 분이 없었습니다.

단지 훌륭한 교수와 좋은 시스템만으로 좋은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과 교수 사이에 친밀함이 이런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느헤미야에서의 생활은 교수와 학생 사이, 학생 상호간의 사이에 교제를 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이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종종 같이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한 학기에 한번은 지도 교수와 학생 간에 식사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이런 모임이 필요할까 싶은 정도로 학생과 교수 사이에 거리는 매우 좁습니다. 느헤미야의 학생들은 멀리 광주, 대전, 춘천에서도 오고, 멀리서 오는 학생 대부분은 주 중에는 서울에서 기숙하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수업을 듣고 같이 밥을 먹고 학교 남아서 같이 공부하고 토론합니다. 느헤미야는 학생과 교수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상을 줍니다.

교수진의 학문적 탁월성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임 교수님들은 물론이고, 초빙 교수님들도 비슷한 수준의 탁월함을 보여 주십니다. 한국 교회사의 경우는 이만열 교수님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런 학문적인 측면 외에도, 학생으로서 교수의 인간적인 면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느헤미야 전임이었던 김근주 교수 외에도 올해부터 배덕만 교수가 느헤미야의 전임 교수가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에 입장에서 교수의 학업적인 면 외에, 삶에서 드러나는 인품과 실천하는 삶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다시 일깨워주는 계기가 됩니다.

‘연구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방학 동안 학생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캠프 사역이라든지, 학생이 주도하는 채플, 사회참여동아리 등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내년이면 신학연구과정의 첫 졸업생들이 사회로 나옵니다. 아직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려는 생각하고 입학한 것도 아니고, 이곳을 알게 된 것도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느헤미야의 생활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를 알게 된 것이 기도의 감사제목이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 느헤미야 졸업생으로 부끄럽지 않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외에 다른 누군가가 목회의 소명이 있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의도로 신학교 진학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기존의 신학교와는 조금 다르지만 다른 만큼의 장점이 있는 느헤미야를 고민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 연구위원 신간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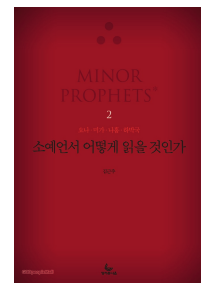


조석민 교수 신간

### 이해와 설교를 위한 『고린도후서 주석』

고린도후서는 전서와 함께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바울이 남긴 다른 서신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목회 실재를 반영하고 있어서 교회와 현실 목회를 이해하는 데 무척 유익한 서신서이다.

특히 고린도후서에서 다루어지는 바울의 사도권 변호, 거짓 교사가 전하는 거짓 복음의 문제, 연보 모금 운동, 성적 타락, 성도 간의 소송,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 영적 경험 등은 오늘날 교회 치리에 매우 적절한 교훈을 준다. 예를 들면, 연보 모금 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르침은 천민자본주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 속에서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한국 교회로 하여금 헌금과 교회 재정 문제를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하게 한다.



김근주 교수 신간

### 소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2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약에서 돌이킨 니스웨는 살아나지만(요나서), 거짓과 포악, 탈취를 행하는 니스웨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나훔서). 이 원칙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된다. 약을 행하는 사마리아가 무너질 것이며, 정의를 굽게 하고 시온을 피로 건설하는 유다는 갈아엎은 밭과 흙무더기가 될 것이다(미가서). 하나님은 유다의 악으로 인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지만, 바벨론의 악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하박국서). 이처럼 폭력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이 악으로부터 돌이키는 자에게는 회복과 긍휼의 은혜가 주어지는 원리는,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것이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더 강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하던 악에서 떠나는 것임을 천명한다.



## 느헤미야 동역자 여러분!

이제 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입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희는 여러 일정과 행사들을 잘 치렀습니다.

감사한 소식을 전합니다. 본 연구원이 구미빌딩으로 옮기면서 강의실과 좁은 교수연구실 공간 등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건물 1층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약간의 공사 후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마련한 '교수연구실'은 주차장 안쪽의 약 10평 정도의 공간이며, 전임연구위원실과 공동연구실로 나누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다소 열악하고 환기가 어렵지만, 독자적인 공간을 갖게 되

어 감사한 일입니다.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함으로 교수진이 연구에 힘쓰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사 중에 냉난방기와 청정기 등을 후원해주신 몇몇 이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강의해서 하나님의 온 백성을 위한 교육을 감당하는 데에 힘을 내겠습니다. 앞으로 매월 1백만원 이상의 추가되는 임대료를 잘 감당하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9월초  
원장 김형원 목사의 연구위원 일동

느헤미안

## 내가 그들의 슬픔에 함께 하게 된 이유

>> 이주 기독교학 심화과정



1.

2년 전 봄날, 세월호가 수백 명의 생명들을 삼킨 채 그 육중한 모습을 바다 속으로 감추어버린 그 날, 정부가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구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당혹감과 나와 내 지인들 중에서는 희생자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이 어지러이 교차했다. 무능한 정부와 권력자들이 벌인 또 하나의 대형 참사, 나를 포함한 힘없는 국민들 중 일부가 재수없게 희생당한 슬픈 역사로만 기억했다. 안타깝지만, 부조리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또 하나의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국가에 의한 참사에 분노한 한 지인은 자신의 실명을 걸고 성명서에 연대 서명했다. 그녀는 함께 연대하자고 성명서 전문을 메일로 보내주었다. 다른 지인은 한 동안 홀로 깊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세월호 사건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한없이 슬퍼하고 또 슬퍼했다. 한 후배는 자신의 친구가 그 배에 타 있었고, 마지막 순간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나오지 못했으며, 절제되고 담담한 어조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그는 매년 그녀의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먼저

떠나간 친구를 그리는 인사말을 남기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녀를 기억한다.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우리 네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러나 나와 그들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 보인 반응은 달랐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보고 당혹스러웠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인데, 왜 나만 달랐을까?

2.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다시 온전히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고 배웠다.


그러나 구원의 목적에 대해 전혀 다르게 설명하는 이들이 있었다. 톰 라이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함이라 했다. 창조 세계에서 인간이 맡았던 역할을 되찾고,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질서를 되찾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 했다. 즉, 구원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 혹은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로 본 것이었다.

브루그만도 비슷한 맥락에서 구원을 구조적인 차

원에서 설명한다. 그는 출애굽 사건에서 중요한 힌트를 발견한다. 성경은 출애굽의 이유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으로 묘사한다 (출3:18, 5:3).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맡은 일, 인간이 해야 할 노동, 즉 이 땅에서의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다시 해내길 원하셨다 (창1:28, 사 43:21, 엡1:12).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다. 그러나 바로는 제사와 노동을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고, 진정한 노동의 의미를 왜곡한다 (출5:17). 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노역에 대해서는 가치를 부여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한 제사는 게으름의 표상으로 치부한다. 바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창조 세계의 질서를 왜곡하고 사회 구조를 이용하여 약자를 착취하고 노동을 소외시킨다. 이미 오랜 세월 노예 의식에 물들어 살아온 히브리인들은 오히려 바로의 세상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평등과 정의, 자유로움에 대해서 오히려 끊임없이 불평을 했다. 또한 브루그만은 솔로몬의 치세와 성전 건축을 바로의 세상이 가나안에서 재현된 것으로 묘사한다. 그는 솔로몬 시대를 착취와 억압을 풍요와 질서로 왜곡한 시대, 또한 하나님을 성전에 가둠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대상으로써 하나님을 통제하고 도구화한 시대로 요약한다. 모세를 비롯한 구약의 예언자들과 예수님은 제국의 질서에 도전했다. 현실을 슬퍼하며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대안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 세상에 대한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또한 세상의 불의를 심판하고 온전하게 회복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었다.

3.

바로의 제국과 솔로몬의 왕국은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존재한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세가,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타락한 세상과 교회의 모습을 아파하고 슬퍼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억압 받고 고통당하는 이웃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 사회의 부조리와 악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제 나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 슬퍼한다. 그들을 위해 애쓰고 애통해 하는 자들에게 공감한다. 유가족들의 목소리와 그들을 돕는 자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를 억압하는 자들을 몰아내고 진정한 위로를 불러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소수의 이기적인 권력자들에 의해 희생당한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나도 함께 아파하는 것은, 왜곡되고 찌어버린 세상에 대해 나 역시 분노하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자 또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깨어있는 시민으로 있고자 하기에, 평등하고 정의롭고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왕이자 제사장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시대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 <예언자적 공동체> 입문과정 서평 중



2017 느헤미야 청소년 겨울캠프 2차

# 하나님 나라 in 학교 2 〈주토피아〉

일시 : 2017년1월12일(금)-14일(토)

장소 : 미정

회비 : 추후공지



학교는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아이들의 아름다운 일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쉽 없이 입시를 향해 달리고, 집단에서 거절당하는 두려움 속에 답답함과 거부감을 일으키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일 년에 한 번 반짝하는 캠프에서 사회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커다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배움은 자신의 성장과 동시에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 가는 과정임을 ‘반짝’이라도 경험하게 하고 싶습니다.

**체육 : 몸으로 만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GO**

김성학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에듀웨이 대표,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

**국어 : 시로 만나는 하나님**

김응교 숙명여대 교수, 시인, 문학평론가, 도쿄대학원 비교문화연구원, 와세다 대학 객원교수

**과학 : 우주에서 만나는 하나님**

강진규 연세대학원 지구시스템 과학과 박사, 광주고등학교 지구과학교사, 숲과 나무교사회 대표

**사회 : ‘우리들’ 영화토론**

강도영 연세대 신문방송학 석사, (전)부산국제영화제 배급사 해외팀장, 빅퍼즐문화연구소 기획자, 주날개그늘교회 전도사, 느헤미야 신학생.

**설교 : 하나님 나라와 학교\_베데스다 이야기**

김근주 느헤미야 학술부원장, 푸른씨앗학교 원장

작년 청소년수련회 <옷장을 열어봐>페이지 참고  
[www.facebook.com/narniacamp](http://www.facebook.com/narniacamp)

## 겨울캠프 기금마련 ‘바실레이아 투 데우’ 티셔츠 판매

청소년 캠프 등록비 기금을 마련하고자, 티셔츠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 회색/남색/검은색
- \* M/L/XL/2XL
- \* 일반 맨투맨 디자인
- \* 앞면에 글씨와 뒷면 목부분에 로고

장당 2만원 이상(택배비 불포함)을 기준으로 청소년 수련회에 마음이 닿는대로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구매하실 분은 느헤미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심



# 후원재정동역자와 재정보고 [2016년 6월~8월]

## 개인후원[정기/일시별]

강도영, 강민혁, 강범일, 강선희, 강성태, 강수연, 강신국, 강신만, 강인성, 강인자, 강일성, 강진규, 강현길, 강형미, 강화춘, 고광덕, 고미혜, 고용우, 고윤일, 고인환, 고재광, 공경표, 공성희, 공영찬, 광명화, 광신재, 광은이, 구동완, 구자욱, 구지혜, 권경옥, 권두현, 권명재, 권민정, 권성호, 권영우, 권연아, 권현진, 기용서, 기효용, 김강산, 김경란, 김경모, 김규동, 김규진, 김근주, 김기범, 김기창, 김기현, 김난희, 김남호, 김대근, 김대연, 김대원, 김대인, 김택, 김도선, 김동식, 김동훈, 김래산, 김미정, 김민석, 김민수, 김민정, 김민철, 김봉래, 김사원, 김상열, 김상욱, 김석원, 김석주, 김석태, 김석훈, 김선호, 김성대, 김성열, 김성학, 김세음, 김소희, 김수정, 김수희, 김신하, 김아름, 김아주, 김양현, 김연희, 김영규, 김영기, 김영진A, 김영진B, 김요한, 김용순, 김우빈, 김유라, 김유성, 김은경, 김은별, 김은성, 김은애, 김은진, 김인성, 김인수, 김재신, 김정길, 김정은, 김정현, 김중욱, 김중필, 김주석, 김준길, 김준수A, 김준수B, 김준혁, 김지은, 김지인, 김지현, 김지환, 김진, 김진미, 김진하, 김진협, 김진희, 김철휘, 김태열, 김태윤, 김태환, 김택용, 김판재, 김하영, 김하영, 김한규, 김형규, 김홍근김소희, 김홍성, 김희정, 나정수, 나종삼, 남기용, 남미영, 남백희, 남상일, 남성현, 남오성, 남일성, 남철, 노민규, 노항림, 노혜미, 노활석, 동방호현, 무명, 문기순, 문명관, 문봉국, 문인배, 문인정, 문형욱, 문혜진, 문효민, 민은경, 민은주, 민지영, 박국이, 박금옥, 박금자, 박기용, 박두진, 박미경, 박미연, 박미향, 박민규, 박민서, 박병만, 박보은, 박성진, 박성숙, 박성준, 박세홍, 박소영, 박순창, 박애영, 박연주, 박영실, 박영혜, 박은정, 박재익, 박정로, 박정수, 박정숙, 박종선, 박준순, 박지연, 박지호, 박진일, 박진철, 박진호, 박준민, 박한배, 박현삼, 박현혁, 박형준, 박해란, 박해원, 박해정, 박훈용, 방성희, 배명성, 배민철, 배성호, 배소연, 배용하, 배운기, 배태욱, 배한나, 백민정, 백승훈, 백승환, 변성진, 변은혜, 변지연, 서미영, 서연자, 석은진, 성경식, 성시은, 손주환, 손주희, 손청근, 손태훈, 송경근, 송다현, 송덕무, 송아진, 송창달, 송현미, 송효진, 신민영, 신선영, 신소용, 신승리, 신승철, 신주현, 신지호, 신현오, 신혜성, 심재용, 안경미, 안병열, 안연희, 안영숙, 안윤희, 안재영, 양지영, 양희수, 엄진용, 엄태진, 여선영, 여신애, 오금애, 오세민, 오수경, 오수현, 오인성, 오정희, 오지연, 오혜경, 옥금희, 온상원, 왕정수, 우재형, 우종학, 원근페리, 유가을, 유경원, 유계상, 유명중, 유명욱, 유명진, 유명희, 유술, 유수경, 유수진, 유승기, 유영백, 유영성, 유옥, 유정, 유주환(정수원), 유지은, 유지희, 유찬양, 유준택, 유영영, 유희창, 윤기원, 윤미지, 윤민규, 윤은성, 윤성운, 윤수일, 윤준택, 윤진아, 윤찬민, 윤희정, 이강산, 이건, 이경미, 이경은, 이경직, 이경하, 이관영, 이귀영, 이규복, 이근우, 이기척, 이기호, 이길순, 이덕복, 이동주, 이동환, 이로운, 이명희, 이미경, 이미순, 이미영, 이방욱, 이병선, 이병욱, 이보람, 이사랑, 이상진, 이상찬, 이상호, 이선재, 이성용, 이세순, 이소연, 이수미, 이수별, 이수연, 이수정, 이수진, 이순조, 이승민, 이승민A, 이승민B, 이신석, 이양철, 이연우, 이영주, 이완수, 이원근, 이원혁, 이윤정, 이은재, 이일수, 이장은, 이재은, 이정락, 이정민, 이정희, 이종규, 이주, 이주연, 이준순, 이종림, 이지연, 이지영, 이진숙, 이진현, 이창민, 이창선A, 이창선B, 이태호, 이풍관, 이한일, 이한주, 이향숙, 이현창, 이형석, 이혜원, 이호태, 이효규, 이희석, 이희우, 임도훈, 임민진, 임석환, 임소옥, 임옥희, 임종화, 임진화, 임철호, 임혜진, 임희주, 장건세, 장경숙, 장상순, 장새미, 장유도, 장은선, 장의신, 장인숙, 장재규, 장재원, 장원현, 장혜영, 장효진, 전갑수, 전계명, 전남식, 전미이, 전세훈, 전재호, 전준환, 정국진, 정라함, 정명숙, 정미현, 정석규, 정선희, 정여임, 정영희, 정용인, 정원순, 정은주정복순, 정이랑, 정재기, 정재도, 정재훈, 정지영, 정지은, 정지은, 정진용, 정찬형, 정재명, 정철규, 정택인, 정하나, 정한우, 정혁규, 정현규, 정혜경, 정혜은, 정희진, 정훈재, 정희원, 조경원, 조기행, 조두용, 조선미, 조선모, 조성영, 조성욱, 조성효, 조순애, 조영민, 조영욱, 조원규, 조은아, 조혜정, 조희준, 지교용, 지성학, 진현자, 차미나, 차정호, 차지훈, 채미숙, 채미혜, 채인규, 채인혜, 채혜진, 천재성, 최경아, 최경진, 최금화, 최동국, 최미근, 최사은, 최성호, 최세진, 최소영, 최수진, 최영상, 최영선, 최영희, 최유나, 최용주, 최원규, 최윤호, 최은영, 최은주, 최일호, 최지연, 최재훈, 최진영, 최혁순, 최현복, 최황덕, 허규하, 허상호, 하태권, 한나영, 한명석, 한명호, 한미현, 한석문, 한솔, 한송희, 한승환, 한유진, 한은혜, 한은희, 한인희(유태호), 한지일, 한혜원, 함봉식, 허성호, 허진석, 허환규, 현지은, 호옥, 홍소라, 홍인경, 홍준호, 홍창용, 황기영, 황남조, 황선관, 황성주, 황정환, 황준영, 황혜정

## 연구위원 후원

강재희, 고선숙, 권연경, 김인철, 김은희, 김창식, 새승교회, 유경서, 이윤희, 전갑수, 전계명, 정혜식, 조상우, 조석민, 황혜정

## 교회 및 단체후원

100주년기념교회, ENM선교회서우A, 개포동교회, 광고산울교회, 그루터기교회, 나들목교회, 사림교회, 산울교회, 삼일교회, 새만교회, 서울영동교회, 신바람홈케어, 어.돌림교회, 열린가정교회, 예인교회, 일산은교회, 주사명교회, 진명해피케이, 찾은이광명교회, 하나꿈한빛누리, 한그루교회

## 장학후원

고상환, 이은미, 무명, 무명, 무명, 무명, 무명

## 특정목적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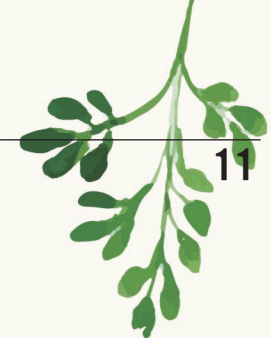
평화누리(장소사용)

## 운영성과

계정과목	6월~8월
사업수익	74,120,379
후원금	48,047,000
일반후원금	44,397,000
특정후원금	3,650,000
사업수입	26,056,430
수강료수입	23,935,000
사업수입	2,121,430
기타수입	16,949
기타수입	16,949
사업비용	77,084,345
사업운영비	26,947,802
사업인건비	15,590,000
사업진행비	8,488,811
사업홍보비	1,368,991
수입외지원비	1,500,000
관리운영비	50,136,543
인건비	25,254,430
사무관리비	24,882,113
당기 순자산의 증(감)	-2,963,966

## 재무상태

계정과목	8월
자산	
유동자산	50,954,918
당좌자산	50,954,918
비유동자산	84,103,119
투자자산	4,352,349
유형자산	39,750,770
기타비유동자산	40,000,000
자산총계	135,058,037
부채	
유동부채	100,000
부채총계	100,000
순자산	
기본금(영구제한)	1,445,000
잉여금(제한없음)	133,513,037
순자산총계	134,958,037
부채와순자산총계	135,058,037



목회학연구과정 · 기독교학연구과정  
**2017학년도1학기  
 신입생모집**

본 과정은 성서적 복음주의 신학, 교회를 살리는 대안적이고  
 보편적인 신학, 삶의 전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신학을 바탕으로 한국기독교의 신학과 교회,  
 신앙의 틀을 새롭게 형성해 나갈  
 지도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모집인원**

30명

**목회학 연구과정 | 3년과정**

목회자 양성을 기본 취지로 교육을 제공하나  
 목회자가 되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강가능

**기독교학 연구과정 | 2년과정**

일상과 삶의 영역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성도를 위한 지도력 양성 과정

**응시자격**

1. 학사학위 취득자 혹은 취득예정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수세 또는 입교후 2년이상 경과한 자

**원서접수**

2016년 12월 1일 (목) ~ 12월 10일 (토), 마지막날 우편발송까지 유효

**전형방식**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전형 (일정은 추후 통보)

**학업방식**

주중 3일 (화, 수, 목) 주간 수업 (단, 1학년은 화, 목 야간수업 병행)

**등록금**

학기당 300만원

**특 전**

1. 입학시 전원 등록금 반액 지급 (150만원)
2. 목회학 연구과정 졸업시 국제장로교(IPC) 한국노회나 (가칭) 느헤미야 교회협의회에서 목사 안수 청원 자격 부여. 여성은 교회협의회에서 안수 청원 자격 부여
3. 주 3일 수업이 힘든 경우 1일 2과목이상 부분 수강 가능 (과목별 등록)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부 (본 연구원 소정양식)
2. 최종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각 1부
3. 자기소개서 (본 연구원 소정양식)
4. 추천서 2부 (목사 및 멘토 추천서)

\* 입학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원하시는 분들은 입학담당교수와 예약하시고 면담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nics.or.kr](http://www.nics.or.kr))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일정 및 알림**

1. 새삼교회와 기독교연구원느헤미야 주관으로 권연경 연구위원의 <OH MY GOD> 성경강좌가 있습니다.

일시 : 2016년 10월 일요일 4주간 오후 2시

장소 : 반포자이아파트 자이안센터 대연회장

등록 : 4만원 (하나은행 890-910003-14105 김광숙)

주제 : 10/2 복음-공평하신 하나님의 능력

10/9 Back to the Future-구원의 소망 회복하기

10/16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10/23 세상의 차별을 지우는 은혜의 통치

2. 10월 화롯불모임은 느헤미야 컨퍼런스로 모입니다.

3. 여섯 번째 이슈북이 나왔습니다. 신학캠프 <정치하는 그리스도인>의 발제문을 엮어 만든 [복음과 정치]입니다. 김근주, 조석민, 배덕만, 김동춘 연구위원의 글이 실려있습니다.

**기도와 동역**

1.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의 비전처럼 한국기독교가 재구성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느헤미야가 기폭제가 되도록

2. 여러 모양으로 동역할 후원자가 현재보다 배가되도록(1000명 이상)

3. 교수님들이 올바르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배워서 한국 교회의 새희망이 되게 하소서

**편집부 알림**

느헤미야 뉴스레터는 계간으로 발간됩니다. 이 뉴스레터는 후원자와 후원교회에 발송됩니다. 좋은 글을 보내주시면 실어드립니다. 특히 후원자와 재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후원자님들은 사무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느헤미야**

발행인 김형원

편집인 고상환

편집부 곽명화 배한나

발행일 2016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2길 5-15 구미빌딩 2층

H. www.nics.or.kr P. 070-8260-0208

F. 02-323-0208 E. nics@nics.or.kr

팟캐스트. 채널 느헤미야

**후원방법**

<정기후원>

www.nics.or.kr/funding에서  
자동이체후원 신청

<무통장 후원>

국민 822401-04-042816  
국민 093401-04-186547  
(재)한빛누리(기부금영수증 발급)

연구위원 후원

신한 100-027-945530

학생 장학금 후원

국민 012501-04-251307

해외에서 후원

Swift CODE : CZNBKRSE  
국민 822401-04-042816